

## 벽사 이우성 선생의 실시학사 강학 활동

金彦鐘\*

- |                  |                 |
|------------------|-----------------|
| I. 머리말           | III.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
| II.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 IV. 나가며         |

### • 국문초록

碧史 李佑成 先生은 일정한 이념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傳道, 객관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授業, 전수한 지식을 깨우치지 못한 학생의 의혹을 풀어주는 解惑, 이 세 가지 동양 전통의 師道를 모두 추구한 분이다. 65세 정년 이전은 주로 저술에 충실하여 수많은 불후의 저작을 남겼고, 학문이 완성된 65세 이후 서세하기까지 27년간은 저술 활동도 했지만 주로 본인이 쌓은 학술 이론을 타자에게 대화와 講學을 시도하여 ‘해혹’에 힘을 기울이셨다. 이 글은 선생이 65세 정년 이후 ‘실시학사’를 열고 문학·사학·경학·철학 분야 소장 門徒들에게 ‘해혹’을 베푼 경과와 성과를 살펴본 것이다. 선생은 정년퇴직 후 1990년 7월에 實是學舍를 열고 고전문학연구회(1992년), 다산경학연구회(1993년)를 결성하였다. 선생은 여기서 매주 정례모임을 가지고, 한문 원전의 비평 강독 및 토론을 돌아가시는 2017년 봄까지 진행하였다. 본고는 정년 이후의 강학을 통한 구체적인 학술 활동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벽사 이우성,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다산경학연구회

---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

## I. 머리말

碧史 李佑成 先生(이하 선생으로 칭함)은 일정한 이념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傳道, 객관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授業, 전수한 지식을 깨우치지 못한 학생의 의혹을 풀어주는 解惑, 이 세 가지 동양 전통의 師道를 모두 추구한 분이다. 전도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 ‘도’ 또한 多岐多様해진 오늘날 종교단체가 아닌 이상 하나의 특정한 이념을 전달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선생이 신봉하던 儒學의 도를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없었지만, 무언중에 力行을 통해서 유학자의 襟度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전도’ 이 항목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나머지, ‘수업’과 ‘해혹’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로 남은 이상 학자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의 것이라 하겠는데 이 두 가지 일의 수행에서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이어서 다 충실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선생은 학자의 사명과도 같은 이 두 가지도 완수한 삶을 살았다. 65세 정년 이전은 주로 저술에 충실하여 불후의 저작을 等身大로 남겼고, 학문이 완성된 65세 이후 서세하기까지 27년간은 저술 활동도 했지만 주로 본인이 쌓은 학술 이론을 타자에게 대화와 講學을 시도하여 ‘해혹’에 힘을 기울이셨다. 선생이 諸多童蒙과 莘莘學子를 위한 수업과 해혹의 강단에 처음 선 것이 1947년 밀양중학교 교단이었고, 서세하기 직전인 2017년 봄까지도 수업을 하였으니 강학 기간이 물경 70년에 이른다. 이 글에서 선생이 65세 정년 이후 ‘실시학사’를 열고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門徒들에게 ‘해혹’을 베푸는 경과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생은 1990년 8월에 오래 봉직하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직에서 정년퇴임 하면서 오랜 교육 봉사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다. 정년퇴직 기념으로 국내외 인사들의 논문을 모은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상·하 2책, 1990년 9월, 창작과비평사)를 출간하였고, 성균관대 국문학과는 기념논총 『국어국문학논총』(1990년 11월, 여강출판사)을 간행하였으며, 한국한문학연구회(현 한국한문학회)에서는 정년퇴직 기념호(1991년, 6월)를,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대동문화연구』 25집을 기념호(1990년 12월)로 간행하였다.

정년퇴직 후 1990년 7월에 강남구 대치동에 개인 연구실인 實是學舍를 마련하여 (2000년에 경기도 고양으로 이전) 문학·사학·경학·철학 분야 소장 연구자들과 함께 고전문학연구회(1992년), 다산경학연구회(1993년)를 결성하였다. 선생은 여기

서 매주 정례모임을 가지고, 한문 원전의 비평 강독 및 토론을 돌아가시는 2017년 봄까지 진행하였다. 이에 정년 이후의 강학을 통한 구체적인 학술 활동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부터 실시학사가 재단법인으로 바뀌고부터, 조선후기 실학자들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들에게 특정 주제를 연구하게 하여 십여 권의 학술서적을 출간하였는데, 이는 선생의 강학 활동과는 별도의 것이므로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 II.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주로 성균관대 박사 과정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고전문학연구회<sup>1)</sup>의 설립 당시 상황과 이력의 대강이 윤세순 박사의 다음 글에 밝혀져 있다.<sup>2)</sup> 윤세순 박사의 글을 아래에 옮겨 신는다.

###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가 번역한 책들과 강독모임의 이모저모

윤세순(성균관대)

- 1) 그간 이 모임에 참여한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시업, 송재소, 진재교, 신익철, 서경희, 김동석, 김명균, 김영죽, 김진균, 권진호, 나종면, 윤세순, 이라나, 이지양, 이성호, 이신영, 이철희, 이현우, 장유정, 정환국, 한영규, 하정승, 김채식, 정은진, 강지희, 최영옥, 김용태, 손혜리, 이성민, 김형섭, 김세호, 박진성, 전수경, 양승목, 하정원, 한재표, 김광명 등이다.
- 2) 윤세순, 「고전번역의 산실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가 번역한 책들과 강독모임의 이모저모」, 『고전번역연구』 4, 한국고전번역학회, 2013.9 참조. 이 글에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과 사실관계의 오류 등은 처음 ‘실시학사’ 연구실 개설의 실무를 맡았고, 첫 번째 조교를 지냈던 진재교 교수의 증언에 따라 수정·윤문하였다. 고전문학연구회는 1991년 2학기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정규 수업시간에서 『이향견문록』 강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완역하기 시작하면서 고전문학연구회가 결성되었다.

## 1. 들어가며

實是學舍는 벽사 이우성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고도 계속 후학들을 양성 하시기 위해 만드신 모임이다. 실시학사와 벽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한문학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일반 독자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도 있기에 여기서 간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벽사 이우성 선생님은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셨기에 국문학 자로만 알기 십상인데, 역사학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내신 분이시다. 게다가 어린 시절 일제가 운영하던 국민학교에 다니지 않으시고 전통 서당식 교육으로 한학을 배우셔서 한문에 능통하고 한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신다. 때문에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국학자’라는 말이 선생님께서 평생 걸어오신 학자의 길에 더 어울리는 표현일 듯싶다. 실시학사란 명칭의 ‘실시’는 ‘實事求是’의 줄인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실사구시는 19세기 중반 추사 김정희로 대표되는 고종학파의 모토로, 객관적인 태도로 학문을 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통해 진리를 얻고자 하고, 이론보다는 실생활을 유익하게 하자는 실학정신이 깃들어 있는 말이다. 벽사 선생님은 70년대 우리 학계에서 실학연구를 개창하시고 이후로 실학연구에 매진하신 분이시기에 실시학사란 명칭에는 선생님의 학문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시학사는 1990년 서울 강남의 대치동 벽사 선생님의 개인 연구실에서 발족하였고, 2000년에 고양시 화정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한문 고전 번역작업을 해왔고, 이제 명실상부 한문고전 번역의 産室로 자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2010년 10월에 실시학사는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고, 강독회는 커다란 변화 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시학사에는 두 개의 강독모임 즉 ‘고전문학연구회’와 ‘경학연구회’가 있는데, 고전문학연구회는 성균관대 국문학과와 한문학과에서 한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문학 관련 한문 고전을, 경학연구회는 각 대학의 경학 및 동양철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한문 고전을 배우고 읽으며 번역하고 있다. 필자는 고전문학연구회 소속이므로 그동안 고전문학연구회에서 번역한 책들과 이 책들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강독 모임이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에서 번역한 책과 그 책이 나오기까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는 지금까지 『里鄉見聞錄』을 필두로 『趙熙龍全集』·『李鈺全集』·『卞榮晚全集』·『完譯李鈺全集』·『二十一都懷古詩』·『熱河紀行詩註』·『嶺南樂府』를 강독모임을 통해 번역하여 출간했고, 조만간 번역을 마친 『貞山詩稿』를 출간할 예정이며, 현재 『太湖詩集』을 강독하고 있다. 필자는 1994년 봄부터 강독에 참여 하였다.

20여 년 전 고전문학연구회에서 겸산 유재건의 편저서인 『이향견문록』을 주목하여 역주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시 여향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이를 진작시키고자 해서였다.<sup>3)</sup> 『이조후기여향문학총서』가 1991년 여강출판사에서 영인되었고, 여향문학[중인문학]은 이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여향인은 중인계층으로 집권 세력이었던 양반 사대부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개성적인 문학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고, 조선 말기인 19세기 역사의 격동기에 새로운 인물유형으로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傳記集을 편찬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들 중인층 지식인이 편찬한 전기집들 가운데 『이향견문록』에 주목한 것은 가장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초벌 번역된 『이향견문록』을 회원들이 다시 나누어 원문과 대조하면서 초벌 번역의 오류를 꼼꼼히 살펴 바로잡고 초벌번역에서 빠뜨린 주석을 보완하는 등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후 회원들이 함께 색인어를 뽑고, 유재건이 『이향견문록』 편찬 시에 인용한 책들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부록으로 붙였다. 그리고 대우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라는 이름을 달고 1997년 대우학술총서로 출간하였다. 이후 몇 년이 지나 이 책이 절판되었는데, 그 동안 시중 서점에서 이 책을 찾는 독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우리 연구회는 원문

교감을 다시 하여 誤植을 잡아내고 그에 따른 오역을 수정하였으며 미진했던 주석들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편집을 다시 하여 2008년 재출간하였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들이 독자층이 되었기에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겉표지부터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즉 초판 겉표지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었고, 『이향견문록』이라는 책제목 옆에 ‘이조시대 탁월한 서민들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았다. 또한 목차부분에서도 한자를 배제하였고, 편마다 인물의 특징적 면모를 알 수 있도록 한글 제목을 달았다. 초판본이 순전히 학술번역서였다면 재출판본은 학술번역서이자 동시에 일정한 교양을 지닌 독자들을 겨냥한 대중번역서라 말해도 과한 것이다.

고전문학연구회의 두 번째 역주서는 『조희룡전집』이다. 趙熙龍(1789~1866)은 19세기 詩書畫 三絶로 알려진 여항의 문인이자 화가였고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다. 추사가 ‘文字香’과 ‘書卷氣’를 강조하며 문인화를 중시했다면, 조희룡은 이념의 아름다움보다는 손끝에서 나오는 手藝를 중시하며 자신의 예술혼을 피워 올렸다.

조희룡은 사대부 문인들처럼 전해지는 문집이 따로 없었고, 遺作들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었다. 고전문학연구회는 당시 세간에 알려진 조희룡의 모든 유작을 수집하고 저본을 복사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며 역주작업을 진행하였다. 고전문학회에서 입수해 번역한 유작은 일종의 수필집인 『石友忘年錄』과 『畫鷗齋調墨』, 畫題集이라 할 수 있는 『漢瓦軒題畫雜存』, 시집인 『又海岳庵稿』, 서간문인 『壽鏡齋海外赤牘』과 『又峰尺牘』 그리고 전기물인 『壺山外記』이다.

맨 처음 강독한 유작은 187항목으로 되어 있는 『석우망년록』이었는데, 당시 정식으로 한문 공부를 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한문 실력이 부족하고 한문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했던 필자에게는 좀 버거운 글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순번 상으로 2·3·4·5 항목을 필자가 번역해야 되었다. 박사과정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된 필자는 당시 고전문학연구회 회원들과도 친분이 거의 없어 대치동 벽사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낯설었다. 이뿐 아니라 조희룡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더군다나 『석우망년록』의 전반적인 내용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면 분량을 가지고선 보고 또 보고 사전을 뒤적이면서 끙끙대며 번역해 보았

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석우망년록』에서 필자가 번역을 맡은 부분을 강독할 당시 박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아직도 필자의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석우망년록』의 제2항목은 小痴 許維가 그린 「東坡笠屐像」을 품평한 내용인데, “東坡笠屐像, …… 別傳一副真相, ……”이라는 구절에서 ‘相’자를 동일한 뜻의 ‘像’자에 견주어서 그 의미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즉 ‘像’자는 다만 보는 이의 눈에 잡히는 사람이나 물체의 외형상의 모습이나 윤곽을 의미할 따름이다. 반면 ‘相’자는 외형상의 모습이나 윤곽을 바탕으로 삼아 그 외형을 뚫고 들어가 그 내면세계와 정신세계를 파헤친다는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다. 또 제48항목에 ‘證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필자가 아무리 『증문대사전』 등을 뒤적여도 ‘증교’라는 단어에 대한 뜻풀이는 없었고, 주변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아도 정확한 의미를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증교’라고 글자 그대로 번역하고 말았는데, 선생님께서 ‘증교’가 어떤 사감을 의미하냐고 번역을 맡은 필자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그 순간 필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초학자인 필자를 어여뵈여기서서 꾸중 대신 친절한 설명을 해주셨다. 즉 ‘證交’란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절친한 벗을 의미하는 말이다. 선생님께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물으시며 이리저리 생각을 하시다가 이 단어의 속뜻까지 살려낼 수 있는 적절한 우리말이 없다고 고심하셨다. 이에 회원들은 ‘證交’라고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고 주석을 달자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서로의 우정을 확실하게 다짐한다는 의미. ‘交’보다 한층 깊은 뜻으로 친족이나 다름없는 관계를 표시할 때 쓰임.”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이처럼 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석우망년록』을 꼼꼼하게 강독하면서 당시 초학자였던 필자는 한문과 고전번역의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지금 필자가 한문학 전공생들에게 강독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자의 의미뿐 아니라 뉘앙스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는 것은 다 박사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다.

세 번째 역주서는 『李鉉全集』이다. 李鉉(1760~1815)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살았던 인물로, 북인계열의 한미한 무반 가문 출신이고 평생 벼슬하지 않았다. 게다가 小品體 스타일을 구사하던 그의 문장 때문에 고문 형식의 순정한 문체를 지향하던 정조 임금으로부터 견책을 받았고 급기야 두 번이나 充軍이라는 처벌을 받는 등 한평생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한 불우한 문사였다. 그런데 이옥은

불우한 삶을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 스타일로 人情物態의 참모습을 묘사하는 등, 기존의 사고와 문학 양식에 도전하면서 소품체 문학의 한 경지를 보여주었다. 당시의 사대부 名士들이 문·사·철을 아우르는 문인이자 학자이며 관료이기도 했지만, 이옥은 오롯이 문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순문학의 길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에서 이옥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그의 문장을 번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옥전집』도 『조희룡전집』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옥의 글들을 수습하여 만든 저작물이어서 의미가 있다. 역주 『이옥전집』이 출간되기 전까지 이옥의 글 가운데 학계에 소개되어 연구된 것은 『俚諺』 정도 밖에 없었다. 이는 이옥의 유작 대부분이 그의 文友였던 金鑣가 편찬한 일종의 문학동인집이었던 『薄庭叢書』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책은 통문관 소장의 필사본이 유일본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다. 대행히도 벽사 선생님과 통문관 이경로 선생의 오랜 친교 덕분에 『담정총서』 내 이옥의 유작을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이옥의 유작 11종과 『이언』과 희곡 작품인 『東床記』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 넘게 번역할 수 있었다. 원문의 오자를 교정 교감하고 원문에 구두점을 찍는 작업도 번역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일단 번역을 마치고 나서 번역된 원고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일부 회원들이 이옥의 본가가 있었던 경기도 南陽 매화동[현재 행정상으로는 화성군 송산면 지화리] 일대와 충군되어 갔던 경상도 三嘉 등지를 답사하여 이옥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고 이를 사진으로 담아 왔다. 이 사진들은 『이옥전집』을 출간할 때 책 앞부분에 화보로 편집하여 넣었다. 그런데 출판사의 경제 사정으로 컬러 사진으로 넣을 수가 없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살펴보니 뿌연 흑백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못내 아쉬웠다. 한편 전집 1권에 수록되어 있는 「남쪽 귀양길에서[南程十篇]」의 글에 이옥이 충군의 명령을 받고 경상도 삼가현까지 갔다 돌아온 旅程圖를 만들어 넣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2001년 11월 출간된 『이옥전집』은 몇 년 안 되어 절판되었고, 그 사이 이옥의 저작이 확실히 되는 『白雲筆』과 『烟經』이 새로 발견되었다. 이에 두 저작을 추가로 번역하고 『이옥전집』을 새로이 편집하여 『완역 이옥전집』이라는 이름으로 2009

년 3월 출간하였다. 출판 과정에서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출판사를 옮기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출간된 책을 보자 출판과정의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새로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 치른 産苦였으리라.

『완역 이옥전집』은 既刊의 『이옥전집』과 몇 가지 점에서 달라졌다. 외형적으로 우선 겉표지가 확 달라졌다. 내적인 충실함을 보여주기엔 적절한 격조 있는 표지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글자의 편집을 독자들이 읽기에 편안하도록 변화시킨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더 內實이 있었느냐다. 먼저 『이옥전집』의 번역문을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서 원문과 대조해 가면서 오류로 판단되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미비하게 여겨지는 주석들을 보완했다. 둘째 『이옥전집』 앞부분에 넣었던 흑백화보를 빼버리고 번역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문 사이사이에 화보를 삽입시켜 놓았다. 예를 들면 『연경』에 담배와 관련된 도구나 풍속화 그림을 상당수 집어넣었다. 셋째 번역된 글의 저본을 영인하여 한 권으로 만들어놓아 이옥 저작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한문학 연구 독자들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했다. 게다가 그동안 이옥 관련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자료, 즉 이옥의 家系와 소속 당파를 알 수 있는 문헌을 영인하여 첨부하였다.

이옥의 소품체 글들은 살아생전 몇몇 지인들 이외엔 인정해 주지 않았고, 또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이백여 년 만에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를 통해 빛을 보게 되었고, 문장가로서의 이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문학이 문·사·철에서 분리되어 근대 문학이 형성되어 나아가는 길목에서 이옥의 문학적 성취는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고전문학연구회는 2001년 『이옥전집』 간행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변영만 선생의 문집인 『山康齋文鈔』를 강독하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변영만 선생은 박학 다재한 천재형 인물로서 다방면에 걸쳐 전문가 수준의 족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시종일관했던 양심적 지성인이었다. 선생은 어린 시절에 수학한 한문고전을 바탕으로 삼고,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하여 서양의 문학과 사상을 폭넓게 섭렵 수용하여 독특한 정신세계를 이룩하였다. 한문학 분야에서는 우리 한문학의 大尾를 장식한 문장의 대가로서 자리매김 되어있고, 선생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본령이 한문학이기 때문에 선생의 문집을 번역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벽사 선생님은 20대 후반 6·25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해 있을 당시 몇몇 분들과 함께 산강 선생을 모시고 시를 수창하던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한다. 때문에 『산강재문초』를 강독하던 중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편지글 등에 보이는 생경한 인물들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주실 수 있으셨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자상한 설명은 번역작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

한편 산강 선생은 일제 강점 시절 각종 신문잡지 등에 많은 분량의 논설과 漫文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문필활동을 하였고, 시조·시·소설을 창작하기도 했다. 선생의 이런 면모는 국문학 분야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고전문학연구회의 회원인 한영규·김진균 동학이 선생의 국문 저술들을 살살이 찾아내어 한권의 산문집을 만들 수 있었다.

2006년 6월 선생의 문집을 강독하기 시작한 지 5년 여 만에 산강 선생의 거의 모든 저술이 총망라된 『변영만전집』 3권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상권과 중권은 각각 『산강재문초』의 번역문과 원문 표점이다. 하권은 그동안 수집한 선생의 국문 작품을 엮은 산문집인데, 선생의 또 다른 號인 薊簞를 붙여 ‘계황산문집’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2006년 6월 전집 발간을 기념해 인천문화재단 등의 후원으로 ‘근대 문명과 산강 변영만’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선생의 인물관·문명관·문장관 등 방대한 학술자료와 1910년대 해외행적 등이 발표되었는데, 선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학술대회였다.

고전문학연구회에서 출간한 『조희룡전집』, 『완역 이옥전집』, 『변영만전집』은 한 개인이 혼자서 힘으로 해내기 힘든 작업이었다. 이 전집들의 출간은 학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고전문학 연구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무게감 있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지만, 『완역이옥전집』의 출간 작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번역 텍스트를 물색하던 2007년 무렵에 당시 여든을 훌쩍 넘기신 벽사 선생님께서 ‘미래를 많이 기약할 수 없는 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략 일 년여 정도 강독할 분량의 저작을 선정하여 번역하자는 의중을 내비치셨다. 이후

로 지금까지 한 권 분량의 실학과 관련 문인들의 저작을 역주 작업하여 출간해 내고 있다.

2009년에는 柳得恭(1748~1807)의 『이십일도회고시』를 역주하여 출간하였다. 『이십일도회고시』는 조선 강역에 존재했던 21개국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조선의 전 역사를 회고시의 형태로 다룬 한시집인데, 유득공이 청나라 인사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지은 것이다. 현존하는 이 책의 판본은 8종이 있는데, 크게 초판본 계열과 재판본 계열로 나눌 수 있다. 고전문학연구회에서는 이들 가운데 最善本에 해당하는 재판본 계열의 玉磬山房本[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을 저본으로 삼았다.

『(역주)이십일도회고시』 편집 방식의 특이점은 번역 작업 시에 생긴 350개의 주석을 한데 모아 원문 다음에 따로 붙여 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십일도회고시』의 체제가 각 편마다 3단 구성방식, 즉 작은 서문과 본장으로서의 시작품 그리고 自註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석을 해당 번역문 아래에 각각 달아 놓으면, 유득공이 시 작품에 대해 직접 달아놓은 주석과 자칫 혼동될 수 있고, 번역문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 우려해서였다. 또한 유득공이 『이십일도회고시』를 지을 때 참고하여 인용한 서목과 8종의 『이십일도회고시』 판본에 대한 설명도 부록으로 붙였고, 옥경산방본 『이십일도회고시』를 영인해 수록해 놓았다. 역주집 간행시마다 책머리의 간행사는 꼭 박사 선생님께서 직접 쓰셨는데, 이번 역주집 부터는 간행사도 회원 가운데 한 명이 쓰도록 하셨다.

2010년에도 유득공 저작인 『열하기행시주』를 역주 출간했는데, 책 제목을 ‘열하를 여행하며 시를 짓다’라 하고, 한자를 그대로 노출하여 ‘熱河紀行詩註’라 부제하였다. 『열하기행시주』 또한 유득공의 한시집으로, 燕行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예리한 시선과 섬세한 필치로 형상화한 시편이었다. 유득공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여행을 좋아하는 취향이 그의 뛰어난 詩才와 어우러져 이런 한시집이 산생될 수 있었다. 그는 역사와 여행이라는 테마를 시 형식으로 표현해 낼 정도로 시를 애호하였고 또 시에 특장이 있었다.

『열하기행시주』는 일명 『灤陽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난양’이 熱河省 承德縣의 별칭이기 때문이다. 유득공은 두 번째 使行인 1790년 청나라 건륭제의 팔순

생일 축하사절단의 일원으로 열하와 북경을 다녀온 후에 이 시집을 펴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열하기행시주』는 모두 8종이다. 그런데 본서는 일본 某 문고 소장 필사본을 복사한 栖碧外史海外蒐逸本の 『열하기행시주』를 저본으로 삼고, 아직 출간되지 않은 『惠風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필사본 『난양록』과 비교 교감하여 역주하였다. 본 역주서에서는 전자를 수일본으로, 후자를 난양록본이라 일컬었다. 수일본과 난양록본은 글자의 출입이 많은 편이다. 또 수일본이 난양록본 보다 내용이 약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고, 난양록본은 수일본보다 글자나 구절이 다소 정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수일본을 번역의 기준으로 삼았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난양록본을 참조 채택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낙하생 李學達(1770~1835)의 『영남악부』 역주서를 출간해 내면서 책이름을 ‘유배지에서 역사를 노래하다’라 하였다. 이학규는 외조부 이용휴와 외숙 이가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성호 이익의 학통을 계승한 정조·순조 연간의 문인이다. 그는 신유박해 때 화를 당해 경상도 김해에서 24년간이나 유배생활을 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 때의 작품집 가운데 하나가 『영남악부』이다. 그런데 유배지가 외진 시골구석이라 참고할 만한 서적이 부족하여 이학규가 아무리 문헌고증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詠史詩를 지으려 애썼어도 역부족이었다.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창작하다보니 작품에 종종 오류가 생겼다. 또 轉寫과 정에서의 오탈자도 있었다. 때문에 강독 시에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의 문헌을 참조하여 오류와 오탈자를 문맥에 적합하게 교정 교감하였다. 게다가 테스트로 선택한 규장각본 『영남악부』[유일본]의 작품 배열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역주서의 편집과정에서 연대순으로 재배열하였다.

2011년 3월부터는 정산 李秉休(1710~1776)의 『貞山詩稿』를 강독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 1월말 경에 재검토까지 마쳤다. 조만간 실시학사 경학연구회에서 번역한 정산의 편지글 등의 산문과 함께 묶어 『정산 이병휴의 시와 철학』이란 제목으로 출간할 것이다. 이병휴는 성호 이익의 조카로 성호 문하에서 그 학문의 정통을 이어받은 학자로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의 시문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어서 문인으로서의 정산은 어떠한지 평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정산시고』를 강독하면서 그가 시에도 특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사 선생님께서는 ‘정산의 시 작품들이 이렇게 훌륭한 줄 미처 몰랐다’고 하셨다. 또 강독할 때마다 시를 음미하시면서 ‘시가 참 좋다’는 말씀을 연발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정산의 시인적 감수성과 미의식에 감탄하셨던 것이다. 시에 대해 문외한인 필자의 안목에도 맑고 영롱하고 담박함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가 한 두 수가 아니었다. 반면 학식이 풍부해서인지 흔히 인용하지 않는 고사를 구사하여 회원들이 번역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였다.

2013년 3월부터는 태호 李元鎮(1594~1665)의 『太湖詩藁』를 강독하고 있다. 이원진은 성호 이익의 부친인 매산 이하진의 伯父 이지완의 장자이자 반계 유형원의 외숙이다. 그는 유형원과 이하진 그리고 이익으로 이어지면서 형성되는 근기남 인계열의 실학풍의 학문을 형성하는데 근간이 된 인물이다. 『태호시고』는 8권 2책으로 이원진의 생애와 관련하여 시대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즉 14세 때 지은 시부터 60세 때 제주목사의 임기를 마치고 귀경하는 길에 지은 시까지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그의 시 작품의 변화과정과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 또한 시 작품을 통해 그의 생애를 再構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박사 선생님께서는 『정산시고』를 강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태호의 시가 이 정도로 수준이 높은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강독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다. 예를 들면 「식영정 시에 차운하여 팔영으로 짓다[次息影亭八詠韻]」의 다섯 번째 시 ‘송담에 배를 띄움[松潭泛舟]’의 첫 구절 ‘소나무 그림자 차가운 푸름에 잠기고[松影沈寒碧]’에서 ‘차가운 푸름[寒碧]’이라는 시어가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몽오정에서 학사 이광윤의 시에 차운하다[夢烏亭次李學士光胤韻]」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구절이 묘하다고 평하셨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구절은 아래와 같다.

|                            |          |
|----------------------------|----------|
| 機心を 잊고 바다에 뒹에 어찌 짝할 이 없을까, | 忘機入海寧無伴, |
| 도가 있어 산에 삶에 정히 외롭지 않으리.    | 有道居山定不孤. |

위 구절에서 바다에 들어간다는 말은 시끄러운 세속을 떠나 은자의 삶을 산다는 뜻이다. 설령 세속을 멀리하여 함께 하는 이가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추구하는 道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한편 태호가 젊은 시절에 지은 시 가운데는 사전이나 공구서를 찾아보지 않으면 의미 파악이 녹록지 않은 시들이 상당수 있었다. 예를 들면 20대 중반의 태호가 성균관 유생시절에 지은 「籍田二十韻」은 농사와 관련된 지식이나 다양한 고사를 모르면 내용 파악이 어려운 시구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태호의 시에서도 정산의 시에서처럼 높은 격조가 느껴져 그의 시를 강독할 때마다 세속의 먼지로 얼룩진 마음이 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 3. 벽사 선생님과 함께 하는 고전문학연구회 강독모임의 이모저모

고전문학연구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강독모임을 갖는다. 먼저 번역할 텍스트를 선정하고 나면 강독에 참여한 회원 수를 헤아려 번역할 분량을 나눈다. 번역을 맡은 회원은 두 시간 정도 강독할 분량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오는데, 강독은 벽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함께 읽어내려 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역이나 오자가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회원이 모여서 강독하여 번역하는 방식은 번역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아무리 탁월한 번역 실력을 갖춘 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수준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여러 사람의 강독을 통한 공동 번역보다 오류가 적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한문의 文法과 典故에 밝은 학자이신 벽사 선생님의 교열을 거친 우리 강독모임의 결과물은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번역은 우선 대상 텍스트를 정확히 읽어 글자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 앞뒤 문맥에 맞추어 될 수 있는 한 직역하려 애쓰고,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만 의역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다. 전문적인 학술 번역이고, 그 독자층으로 우선 전문연구자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나친 의역은 피하였다. 벽사 선생님은 요즘 한문 고전번역 작업을 아주 쉽게 생각하여 허술하게 번역하는 경향에 대해 한때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번역은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누차 말씀하셨다. 고전문학연구회 회원들은 우리 고전 텍스트의 정확한 번역이야말로 인문학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 믿고 있다.

선생님께서서는 강독 시에 우선 회원에게 자신이 번역해온 부분을 한 번 소리 내어 읽어보게 하신다. 그리고 소리의 장단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따지셔서 회원들이 장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으면 지적하여 바로 잡아주고 다시 읽어보도록 하신다. 그 다음엔 회원들이 강독해온 번역에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번역을 담당한 회원에게 질문을 하여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여 번역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신다. 번역해온 문장을 고쳐야 할 경우엔 선생님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특히 번역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에 적합하지 표준어인지를 확인하신다. 회원들보다 한참 앞선 세대이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우리말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아시고 번역서를 읽을 요즘 연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번역하시려고 애쓰신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어린 시절엔 ‘暴君’은 ‘포군’이라고 읽었지 ‘폭군’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나 흔히 사용하는 한자이지만 문맥에서 전혀 뜻이 통하지 않을 경우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신다. 문맥에 맞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냈을 경우엔 ‘이 글자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줄 내가 몰랐다’고 당당히 말씀하신다. 『논어』의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라는 구절이 문득 떠오른다. 한평생 好學하시며 쉼 없이 학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리라.

반면 사전의 의미가 잘못되었을 경우엔 그 오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다. 필자가 초학자였을 시절엔 사전이 번역을 도와주는 神인양 무조건 追隨했었는데, 사전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후로 사전을 참조하되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게 되었다.

회원들이 각자 자신의 맡은 부분을 강독할 때 선생님께서는 번역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단번에 아신다. 제대로 꼼꼼히 번역해 오지 않았을 경우엔 불호령이 떨어진다. 때문에 회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정성을 들여 번역한다. 번역이 수정할 필요 없이 잘되었을 경우엔 ‘옳지’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도

있지 않으신다. 선생님의 채찍과 당근이 회원들의 번역 실력을 날로 달로 영글게 하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정도의 강독으로는 번역의 진도가 제대로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답사를 겸한 집중 강독회를 가졌다. 필자는 1990년대 초반 고전문학연구회에 들어와 조희룡의 작품집을 강독할 즈음에 처음으로 겨울 집중 강독 여행에 참여하였다. 답사 겸 집중 강독모임의 장소는 충남 예산이었다. 우리는 남연군 묘와 추사고택 등을 답사하고 저녁에 수덕여관에 묵었다. 첫날 저녁 회원 서로 간에 많이 서먹하던 차에 회원 중 누군가가 일명 ‘끼워 먹기’라는 카드놀이를 제안하였다. 필자는 처음 알게 된 놀이였지만 초등학교도 백발의 노인도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놀이였다. 회원들은 이 놀이를 하면서 흥겨워하였고 공동체 의식도 갖게 되었다. 이 놀이에서 판돈을 휩쓴 회원이 다음날 회원 전원의 아침밥을 사주었다. 그러고도 돈이 남아 수덕사 경내에 있는 서점에서 불교사전을 구입했다. 우리는 이 사전을 일명 수덕사판 사전이라 불렀다. 놀이는 밤 1시가 넘어서까지 열기 속에 계속되었는데, 새벽 3시에 거행되는 수덕사의 새벽 예불에 참배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에 조희룡의 작품을 강독했다. 선생님께서는 덕산온천 부근에 숙소를 정하셔서 어제 밤 회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신다. 선생님께서 회원들과 함께 수덕여관에 묵으셨다면 회원들 간의 유대를 긴밀하게 해주었던 놀이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고 회원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서먹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 시절의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색되어 필자의 가슴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다. 이후에도 우리는 집중 강독을 통해 진도를 많이 나갔고, 또 집중 강독 기간에 초벌 번역을 다시 꼼꼼히 검토하여 온전한 번역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년이면 벽사 선생님께서 구순이시다.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시간이 유한하지만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강독 수업이 좀 더 긴 시간 동안 지속되길 기원한다.

3) 본디 『이향전문록』은 1991년 2학기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정규 수업시간에서 강독을 시작하였고, 이후 한문학 전공자들이 고전문학연구회를 발족하여 이것을 완역(1997년)하였다.

### Ⅲ.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경학연구회<sup>4)</sup>는 대부분 선생이 재직한 성균관대 이외의 여러 학교에서 경학을 위주로 공부하는 대학원생과 소장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설립 당시의 상황과 이력은 김언종이 2000년 이전의 경과를 쓴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1)」<sup>5)</sup>와, 2000년 이후의 경과를 쓴 문석윤의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2)」<sup>6)</sup>에 비교적 소상히 밝혀져 있다. 아래에 두 글을 전재한다.

####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I )

김언종(고려대 한문학과)

실시학사 ‘경학연구회’<sup>7)</sup>는 주로 다산의 경학과 그와 연관 있는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삼사십대의 學人들이 공부하는 모임이다. 碧史 李佑成 선생과 竹夫 李簾衡 선생의 지도 아래 매주 화요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벽사 선생의 개인 연구실 實是學舍에 모여 함께 연찬하는데 첫 모임이 1992년 1월 20일에 있었으니 벌써 8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마를 맞대고 절차탁마한 학인들이 30여 명, 두 권의 책이 번역되어 나왔고 올봄에 출간될 예정인 책이 두 권 더 있으니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하겠다. 회원이면 누구나 소개의 글을 쓸 수 있겠지만 이 모임의 성립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관계한 사람의 의무가 있다는 필자가 떠밀리어 나서게 되었다.

- 4) 원래 명칭은 다산경학연구회였으나 후일 연구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경학연구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 5) 이 글은 『전통과 현대』 7, 1999년 봄호에 실렸다가 『실시학사 사반세기』(실시학사, 2015)에 재수록되었다.
- 6) 이 글은 『실시학사 사반세기』(실시학사, 2015)에 실려 있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것과 불명확한 것은 수정하였고 일부 내용도 수정하였다.
- 7) 회원은, 강중기, 김언종, 김경천 김문식, 김보름, 김수길, 김선희, 김성재, 김영우, 김한상, 나종면,

필자가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할 때 儒家의 경전을 개관하는 과목인 『群經大義』를 강의하셨던 黃慶萱 교수가 1991년 한 해 동안 한국 외국어대 중문과에 교환교수로 오셨다. 선생님은 고려대 중문과 대학원에도 출강하여 『周易』을 강의 하셨는데 가끔 뵈 때마다 중국에 유학한 적도 없으면서 중국어에 능숙하고 경학에 깊은 공부가 있는 학생이 있다고 극구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는 茶山の 『論語古今註』의 대강을 소개하는데 지나지 않는 영성한 논문으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뒤, 이제는 爲己之學을 해야겠다는 위기감에서 同學을 찾고 있던 나에게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었다. 그가 바로 고려대학교에서 『顧炎武의 經學 연구』로 학위를 받고 현재 성균관대 한문교육학과에서 경학을 강의하고 있는 金慶天 교수이다. 나는 일찍이 학부시절에 靑溟 任昌淳 선생의 태동고전연구소에서 한문을 배웠으며 선생의 추천으로 중국문학 이론가이자 시경연구에 큰 족적을 남기신 李辰冬 (1906~1983) 선생과 인연을 맺고 대만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런데 김 교수의 한학적 기초도 청명 선생의 문하에서 다져진 것임을 알고는 더욱 반가웠다. 우리는 경학 제반에 관한 견해에 있어 많은 부분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同氣相求의 차원에서 경학에 뜻을 둔 동학들을 모아 절차탁마의 자리를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으기에 이르렀다.

그 이전 1990년 5월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실학사상의 전개”를 주제로 한·중·일 세 나라 학자가 참여한 동아시아 삼국의 실학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18세기를 전후로 한·중·일에서 각각 자생적으로 발생한 실학에 관한 연구를 국제적으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최초의 실학 관련 국제회의였던 셈이었다. 회의는 그때부터 격년제로 정례화 되어 각국이 교대로 개최하는데 그 다섯 번째 회의가 1998년 가을에 중국 하남성 開封에서 열렸다. 어쨌든 중국과 일본이 인정하는 실학연구의 先鞭을 잡은 한국 실학계, 그 중심임을 자임하는 한국실학연구회는 조직을 활성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실학연구회의 회원인 필자는 이지형 선생을 통하여 회장인 이우성 선생께 연구회 산하에 실학연구의 바탕이 되는 경학을 공부하는 모임을 열고 직접 계도해 주시기를 건의하였고, 선생은 이를 쾌히 승낙하셨다.<sup>8)</sup> 이에 김경천 교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同道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이 일에는 오로지 김 교수의 식견과 열성이 큰 힘을 발휘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의 참석자는 모두 일곱 명으로 두 분 선생님

외에 김정천, 김문식, 이동철, 오항녕, 김언중 다섯 명이였다. 그 뒤 알음알음으로 회원 수가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회원 중 대부분이 청명 임창순 선생의 芝谷書堂에서 몇 년간의 고된 한문연수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거나 민족문화추진회 산하의 국역연수원이나 그 밖의 한문학 습기관에서 수년씩 공부를 한 사람들이였다. 첫 모임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경학에 관한 가장 많은 저술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 있어 중국 최고 수준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산 정약용의 저술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먼저 『여유당전서』 시문집에 散見되는 경학 관계의 글이라면 한두 마디의 짧은 것까지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토의에 부치기로 했다. 토의에 앞서 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발표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다.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감수하고라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십 년 가까이 혹은 십 수 년간 한문을 공부하였으므로 자신이 ‘한문 해독자’의 대열에 끼어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그것이 터무니없는 착각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번역문이 박사 선생의 斧正이 있고 나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성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이른바 滿身瘡痍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글’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道’를 배우러 왔다고 자부하던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드는 일이 수백 회의 모임을 거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學無止境’ 네 글자만이 늘 우리를 위로한다. 그러나 그 글만은 담겼던 의미를 거의 놓침이 없는, 원문과 거의 같은 무게의 글로 바뀌기 마련이며 우리는 이것을 보배로 간직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수업의 前半일 뿐이다. 수정이 마무리되면서 시작되는, 그날의 주제와 연관되어 펼쳐지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질문과 선생의 左右逢源식의 계시와 계발이야말로 참여자들의 정신을 一到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모임이 여러 해가 되는 동안 쌓인 원고가 상당량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여 활자화한 것이 『正體傳重辨』(1995, 한길사, 이때부터 모임의 명칭을 ‘실시학사경학연구회’라 하였다)과 『茶山과 文山의 人性

論爭』(1996, 한길사) 두 권의 책이다. 『정체전중변』은 副題 『조선후기 禮訟에 대한 다산의 인식』이 시사하듯이 己亥禮訟을 중점적으로 다룬 다산의 「정체전중변」 3편과 이에 연관된 「辛巳服制辨」·「立後論」 등 소논문 6편을 우리말로 옮기고 주를 달아 한데 묶어 출판한 것이다. 이 책은 비록 분량은 적지만 경학사, 특히 예학사에서 뿐만 아니라 17세기 정치관계에 대한 史的 이해에도 비중이 매우 큰 것이다. 『다산과 문산의 인성논쟁』은 다산이 당시 한 노론 가문의 이름난 선비였던 文山 李載毅(1772~1839)와 인·의·예·지가 인간에 있어서 內在하는가 外在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각각 一方에 서서 끝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벌인 논쟁에 관한 주요 자료와 보조 자료를 모아 번역·출판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 분야에 뜻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制約’ 때문에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 의의 깊은 모임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늘 조바심을 느끼고 동시에 어떤 미안함을 느낀다. ‘제약’이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혹 어떤 偏向的인 시각과 사고를 강요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바람결에 스쳐 들은 듯도 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쓸데없는 오해’일 뿐이다. 봉건시대도 아닌 오늘날 그 무슨 얼토당토않은 너무도 봉건적인 생각이란 말인가. 정말이지 이 시대는 무슨 그런 ‘제약’에 얽매이고서도 학자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당연히도 학문의 마당엔 다만 진리에 관한 탐구의 열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이 모임의 대문은 항상 열려있는데 다만 마루가 좁은 것이 걱정스럽다. 그러나 깔개가 없다면 맨 마루 맨땅에 앉은들 어땠겠는가.

회원들은 한 해에 한두 번씩은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명승이나 고적지를 심방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단단한 고리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곳들에 발길이 닿았다. 牛溪 成渾을 모신 파주의 파산서원, 栗谷 李珥를 모신 파주의 자운서원, 谷雲 金壽增의 은거지 화천의 곡운계곡, 華西 李恒老의 고택, 石泉 申緯의故居가 있는 경기도 광주, 茶山 丁若鏞의 고거와 유택이 있는 능내리, 천주교와 이상한 인연을 맺고 있는 天眞庵 일대, 霞谷 鄭齊斗와 寧齋 李建昌의 유적지 강화도 일대, 고운 최치원의 유적이 남아있는 지리산 쌍계사 일대, 안동의 芝禮 창작촌 등등이다. 그중 다산의

천년유택이 있는 언덕에서 다산의 「自撰墓誌銘」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더듬어 보았던 일은 기억에도 새롭다.

이 모임은 때로 국내외의 관련 학자들을 초대해서 사례도 못 하는 강의를 청해 듣고 식견을 넓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劉長林 교수, 북경대학의 董洪利 교수, 일본 惠泉女大의 澤井啓一 교수, 早稻田大學에서 한국 고대사를 강의하는 재일동포 李成市 교수, 다산의 정치사상을 연구한 부산 성심외대의 배병삼 교수 등이다. 또한, 회원 자신이 작성 중이거나 발표한 논문을 자원하여 도마 위에 올리고 동학들의 지적을 달게 받는 일도 자주 있다.

우리는 한때 박사 선생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무척 걱정한 적이 있다. (걱정이라기보다 전통학과 현대학의 조화를 이룬 선생의 정백한 강론을 중지라도 하실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지난해 늦가을, 중국에서 열린 국제실학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朱子의 유촉지인 복건성 武夷山, 魯迅의 고향이자 기념관이 있는 절강성 소흥 등지를 십여 일이나 다녀오시고도 피로의 기색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다. 그러므로 고금의 경학을 이해하고 나아가 조선후기 사상의 동향까지도 짚어 보자는데 목적을 둔 우리들의 이 모임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을 애써 하는 이유는 이 분야에 뜻을 두었거나 두고자 하는 學人들에게 경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을 한층 더 단련하고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갈 기회와 시간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데 있다.

---

문석윤, 박성규, 박지현, 백종천, 송영아, 송지원, 신진혜, 안병걸, 양원석, 양일모, 오향녕, 유미림, 유민정, 윤상수, 윤석호, 이치역, 임재규, 이동철, 이명희, 이봉규, 이상돈, 이원택, 이은호, 이찬, 이철희, 이현창, 임부연, 임재완, 장동우, 장병한, 장호성, 전광진, 전병욱, 전성진, 전성호, 정소이, 정일균, 진영미, 최정연, 한예원. 함영대 등이다.

- 8) 처음 참여 대상자는 『한국경학자료집성』 해제자와 관련 경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김언중, 김문식, 김정천, 안병걸, 최석기 등이 거론되었다.

## 실시학사 경학연구회(Ⅱ)

문석윤(경희대 철학과)

### 1. 들어가며

필자가 실시학사 경학연구회에 입회하여 벽사 선생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것은 실시학사가 서울시 대치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으로 옮긴 2000년 무렵이었다. 그전에도 서울대 철학과에서 같이 공부하였던 김영우 교수(인제대)와 이봉규 교수(인하대)로부터 모임에 대한 소개와 가입 권유를 받은 바 있었지만, 박사 논문에 집중하고 있던 때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었고, 학위를 받은 후에는 곧 취직되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99년 가을, 대출을 받아 학교 앞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IMF 시대의 고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처분하고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게 되었고, 마침 실시학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화정동으로 이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또한, 평소에는 다산 경학 관련 자료들을 강독하지만, 방학 중에는 안동에 가서 숙식하면서 『退溪集』을 집중적으로 강독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퇴계에 대한 연구논문을 계획하는 동시에 그의 문집에 대한 定本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나로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다.

벽사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2001년 2월 안동에서 있었던 강학에 참여하였다. 교재는 大山 李象靖이 정리한 『退溪先生書節要』였다. 하지만 2001년 1학기에는 미리 시간표를 조정하지 못한 관계로 참석할 수 없었다. 같은 해 7월에 있었던 여름 강학에 참석하였고, 2학기부터 매주 화요일 화정동 찬우물 빌딩 7층에 자리 잡은 실시학사 세미나실에서 열렸던 경학연구회 강학 모임에 참석하였다. 연구회에서는 茶山의 『詩經講義』 강독을 막 시작한 참이었다.

그로부터 201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필자는 2003년 2학기에서 2004년 1학기까지 연구년으로 1년을 빠진 외에는 거의 매주 빠짐없이 모임에 출석하여 가르침

을 받았다. 또한 외람되게도 2009년부터 경학연구회의 총무를 맡기 시작해서 어쩌다보니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총무직을 수행하고 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체로 2년 정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총무직을 맡아 온 것을 감안한다면<sup>9)</sup> 상당히 오랜 기간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면서 부끄러운 자리를 지킨 셈이다.

지난 해 실시학사의 역사를 회고하는 모임이 만들어 지고 그 대담 내용을 책으로 엮어내면서, 김언중 교수(고려대)가 경학연구회 모임에 대해 2000년에 써 놓은 글과 윤세순 씨가 고전문학연구회에 대해 2013년에 쓴 글을 함께 신기로 하였다. 윤세순 씨의 글이 모임 초기부터 비교적 최근까지의 소개를 하고 있다면 김언중 교수의 글은 2000년까지의 기록이므로, 그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경학연구회 모임에 대해 보고하는 글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그 글은 2000년 이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해서 현재 총무를 맡고 있는 필자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엇그제 일도 가물가물한 형편없는 기억력과 꼼꼼하게 기록을 잘 남겨두는 성실성도 부족한 관계로 제대로 보고하기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나마 띄엄띄엄 남아 있는 기록과 전임 총무들이 남겨 놓은 자료 등을 기초로 해서 부족한 기억을 되살려 2001년에서 2015년에 이르기까지 ‘학사에서의 학기 중 강독’과 ‘방학 중의 집중 강독’에서 어떤 책을 다루었는지에 대해 대강을 기록해 두고자 한다.

## 2. 학사에서의 학기 중 강독 (2001.3~2015.8)

### 1) 실시학사에서의 강독 형식

먼저 실시학사에서의 강독 형식에 대해 잠시 언급해 둘 필요가 있겠다. 강독은 먼저 강독 교재의 일정한 분량을 참여 회원들이 나누어 맡고, 순서에 따라 발표자는 발표문을 준비하여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읽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표자는 한 단락씩 원문을 읽고 다음에 그에 대한 번역문을 읽는다. 발표자가 한 단락을 발표하면, 박사 선생님이 다시 원문에 토를 붙여 읽으시고, 그 다음에 발표자의 번역문을 읽으시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치신다. 그런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물으시고 추가로 고칠 부분에 대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서로 토론한다. 최종적으로 선생님께서 번역 내용을 확정하신다. 그런 다음 발표자가 붙인 주석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강독 중에 선생님께서는 간헐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 부연하여 말씀해 주시며, 어떤 경우에는 번역 내용 뿐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회원들 상호간의 토론을 유도하셨다.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진행 방식이며, 학기 중 뿐 아니라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집중 강독까지 모든 강독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필자가 연구년 기간 중 방문하였던 동경대학교 중국철학과 대학원에서의 수업 방식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회원들은 말하자면 매번 대학원 강독 과목의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2001년에서 2006년 9월까지: 『詩經講義』

필자가 참석하기 시작한 2001년 무렵에 시작하여 2006년 1학기까지 거의 6년간 茶山 丁若鏞의 『詩經講義』에 대한 강독이 진행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언중 교수가 쓴 『시경강의』(2008, 도서출판 사암) 해제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경강의』 본문만이 아니라 해당하는 『詩經』 본문을 다산의 견해를 반영하여 번역하여 먼저 제시하였고, 본문에 대해서는 新朝鮮社 本과 奎章閣本, 그리고 『弘齋全書』의 관련 부분을 비교하여 교감하고 표점을 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詩經講義補遺』를 『시경강의』의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산 배치하여 편집하고 번역하였다. 또한 번역본의 원편에 표점을 가한 원문을 싣고 오른 편에 그에 해당하는 번역문을 싣는 등, 이전의 고전 번역본들에 비해 그 형식과 체제에서 한 단계 높은 시도를 한 것이라고 자평하고 싶다.

분량이 방대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므로, 초기에 참여한 회원들 중 다수가 계속 강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일괄하여 수합하는 것부터가 문제였고, 최종적인 원고를 일관된 형식으로 편집하고 교정 및 교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김언중 교수와 김성재 박사가 출판 관련 업무를 총괄해 주었다. 특히 김성재 씨의 노고가 컸다. 참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모임을 위해 헌신해 주었다.

2005년 11월 경학연구회는 그간의 번역과 출판물의 성과를 인정받아 다산학술

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3) 2006년 10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尙書古訓』 「序例」

『시경강의』 이어서 강독한 것은 역시 다산의 『尙書古訓』이었다. 2006년 10월에 시작하여 2008년 12월까지 「尙書古訓序例」 전체, 곧 「尙書序」 100편에 대한 번역을 마쳤다. 강독 대본은 신조선사본 『상서고훈』을 사용하였다.

『시경강의』가 그 내용의 다채로움과 참신함에서 강독하는 재미가 솔솔 하였다면, 『상서고훈』은 내용도 난잡하고 매우 건조한 내용이 연속된 관계로 강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그 양이 방대하였으므로, 그것의 완역을 기약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선생님은 여전히 강독을 주도하시고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상서고훈』을 계속 강독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의욕을 보이지 않으셨다. 2009년부터는 가능한 한 1년 정도 단위로 완독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서 강독하기로 하고 『상서고훈』의 번역은 「堯典」의 번역을 일부 시작한 상태에서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 2009년 3월에서 2011년 11월까지: 『退溪集』, 『兩先生四端七情往復書』 강독

2009년 3월부터는 적당한 실학 관계 문헌을 확정하기 어려웠고 마침 퇴계학연구원에서 『定本 退溪全書』가 일차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본의 내용을 점검하고, 또 방학 중에 안동 등지에서 진행되어 온 『퇴계집』 강독을 이어서, 퇴계학연구원에서 이미 번역하여 간행한 『국역 퇴계전서』의 번역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취지로 『정본 퇴계전서』 강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본 퇴계전서』는 퇴계학연구원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교육부(한국학중앙연구원 위탁)의 지원을 받아서 1차 편성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서, 그 사업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발의되고 추진된 것이 실시학사의 여름강학회에서였던 인연이 있다.

강독은 새롭게 편성된 『정본 퇴계전서』를 대본으로 하여 「答農巖李相國〈賢輔○己酉〉」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정본에 실린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2009년 12월까지 근 일 년 간 진행되었다. 기존의 『국역 퇴계전서』에서 산절된

자료들 역시 추가로 번역되었다. 강독이 그간 주로 다산의 경학 자료를 대본으로 하던 데에서 퇴계의 편지글로 옮겨 감에 따라 성리학을 전공한 젊은 학자들이 다수 신규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박성규, 박지현, 김수길, 김한상, 이상돈, 이찬, 전병욱, 이치억 등이 그들이다. 신규 회원들의 확대는 2010년 10월 실시학사 재단이 출범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새로 세미나실이 꾸며져 강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소이, 김보름, 전성건, 김선희 등 다산을 중심으로 실학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던 젊은 학자들, 그리고 한국 경제사 분야의 중진학자인 이현창 교수, 그리고 일본에서 황종희로 학위를 한 윤상수 박사 등이 신규 회원으로 대거 참여하였다. 초창기부터 참여해 오던 회원들이 취직, 이사 등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부진한 가운데 회원의 면모가 크게 일신한 것이다.

성리학을 전공한 회원들이 다수 참여함에 따라 『정본 퇴계전서』 강독이 한층 힘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는 퇴계와 고봉 사이의 사단칠정논변이 수록된 자료인 『兩先生四端七情往復書』에 대한 강독과 번역이 추진되었다. 당연히 강독 대본은 기존의 몇 종의 『양선생사단칠정왕복서』와 『정본 퇴계전서』에 실려 있는 해당 편지들을 망라하여 그 자체 정본을 편성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되었다. 실시학사 재단의 출범과 함께 강독에 대한 지원(식사비)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제 오전 강독에 그치지 않고 오후에도 또 한 번의 강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벽사 선생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지도 아래 퇴계 편지글을 읽는 강독 경험은 회원들에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지적 자극을 주었다. 벽사 선생님 역시 그에 못지않은 의욕으로 응대하셨다. 이미 팔십을 넘어 구십을 바라보시는 연세에도 오전 오후로 이어지는 강독에 어느 정도 힘들어 하시면서도 최선을 다해 모두 참석하여 친히 지도하셨다. 그 결과 2011년 11월에는 『양선생사단칠정왕복서』를 강독 완료하였으며, 『天命圖說』과 「天命圖說敍」 등에 대해서도 강독을 진행하였다. 선생님은 철학적 논변이 지나치게 번쇄하게 전개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셨지만 철학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계셨고 현대에서도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는 가 반문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되살려 내고 확장시켜 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

『정본 퇴계전서』 강독은 실시학사 재단이 출범하면서 일단 중단되었고, 그간 방학 중 집중 강독한 부분을 포함하여 목판본 『퇴계집』 기준으로 권9에서 권15에

이르는 분량이 번역·정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차후 이 자료는 『국역 퇴계전서』의 교정과 보완 작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이 완료된 『양선생사단칠정왕복서』는 현재 필자가 정리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정리를 마치는 대로 출간할 예정이다.

##### 5) 2010년 9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貞山雜著』, 『大學心解』 강독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2010년 10월에 慕何 李憲祖 회장의 출연으로 실시학사 재단이 설립되고, 강독 모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강독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었다. 사무실과 세미나실 하나가 추가로 생겼고 자체의 도서관도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박사 선생님께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강독에 임하시게 된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2010년 9월부터 재단 출범 후 첫 강독 및 번역 대본으로 貞山 李秉休의 『貞山雜著』에 실린 편지 및 논설 등의 산문 자료들과 『大學心解』에 대한 번역에 착수하였다. 『정산잡저』는 『近畿實學淵源諸賢集』(200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제3책과 제4책에 실린 것을 사용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 소장된 『貞山稿』 2책을 對校 자료로 활용하였다. 『대학심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안정복일기』에 들어 있던 자료로서 역시 『근기실학연원제현집』에 수록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봉규 교수가 『정산잡저』에서 주로 心性理氣說과 經學에 관련된 내용을 뽑고 그에 덧붙여 『대학심해』를 덧붙여 강독 대본을 편성하였다. 고전문학연구회에서 정산의 詩들을 모아 놓은 『貞山詩稿』를 강독하여, 나중에 합편하여 실시학사 재단의 ‘實學翻譯叢書’의 첫 번째 서적으로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강독은 2012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물이 2013년 10월 『정산 이병휴의 시와 철학』(사람의무늬)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고전문학연구회와 경학연구회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최초의 성과물이다. 星湖 이후 성호 後學들을 거쳐 茶山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진지한 연구를 촉진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번역 과정에서 몇 회원이 관련 연구 논문을 작성하거나 준비하는 등의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6) 2013년 3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心經疾書』 강독

정산의 글을 이어 강독한 것은 星湖 李瀾의 『心經附註疾書』 혹은 『심경질서』였다. 2013년 3월 26일 강독을 시작하여 2014년 12월 9일 강독을 완료하였다. 1년여 기간에 강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적절한 문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실학 관련 문헌들이 이미 번역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참여하는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 성호의 『심경부주질서』는 아직 번역은 없었지만 연세대학교 이광호 교수의 주도로 심경관련 주석서에 대한 편성 및 주해 작업이 상당히 오래전에 진행되고 있었고(실제로 2014년 『심경주해총람』(동과서)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성호의 『심경부주질서』도 그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異本들에 대한 교감 작업을 병행하여 세심하게 대본을 편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강독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번역이 완료된 후 이봉규 교수가 해제를 쓰고, 임부연 씨가 최종 원고 수합과 교정 작업을 총괄하여 현재 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서,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 7)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尙書古訓』

2015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강독 대본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거듭되었다. 벽사 선생님은 역시 단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대본을 찾아볼 것을 주문하셨지만 적당한 것을 선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선생님의 건강 상, 이전처럼 강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셨다. 회원들의 논의 결과 이전에 착수하였다가 멈추었던 『상서고훈』을 이어서 완역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단 회원들끼리 예전처럼 모여 강독을 진행하되 벽사 선생님께는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모아 여쭙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가능한 한 2016년 연말까지는 번역 초고를 완성하기로 하고 현재 강독을 진행하고 있다.

### 3. 안동 등지에서의 방학 중 집중강독 (2001.2~2014.8)

2001년 2월, 필자가 처음 안동 강학에 참여하였을 때 강독 대본은 대산 이상정의

『퇴계선생서절요』였다. 당시 경학연구회는 학기 중에는 실시학사 세미나실에서 『시경강의』를 읽었지만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는 安東에 내려가 퇴계의 편지글을 집중적으로 강독하였다. 안동에서의 강학은 퇴계학연구원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 박사 선생님은 퇴계학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셨고, 안동 강학은 퇴계학연구원 사업의 일환이었다. 주로 경학연구회 회원들이 참여하였지만 고전문학연구회의 회원들, 특히 이지양, 윤세순, 김명균 씨 등이 동참하였다.

2002년 7월에 있었던 강학부터는 『퇴계집』에 관한 기존 번역을 교정 및 수정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퇴계집』 서간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강독하였다. 그것은 퇴계학연구원에서 이미 출간한 『국역 퇴계전서』의 번역을 기본으로 하여 그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물론 강독하는 방식은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분담하여 원문과 번역문, 주석으로 된 발표문을 준비하여 발표하고 그것을 한 단락씩 검토해 가는 것이었다.

강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판본과 필사본[樊南本]을 함께 참조하여 대조 및 교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柳道源의 『退溪先生文集考證』과 李野淳의 『要存錄』 등의 참고 자료도 함께 참조하였다. 박사 선생님의 곡진한 이해와 풍부한 배경지식과 더불어 세밀하게 강독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초기에는 4박 5일간 진행하였으며, 나중에는 3박 4일을 진행하였는데, 알차게 진행되는 경우 거의 한 학기의 강독 분량에 가까운 분량을 강독하는 집중도가 있었다.

강독은 오전 7시에 食前 강독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된다. 이후 휴식과 아침 식사 시간이 있고,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오전 강독이 있다. 이후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이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강독 장소에서 가까운 명소를 답사하거나 경관이 좋은 찻집을 찾아 차를 한 잔 하는 것이 정해진 코스였다. 이 시간은 박사 선생님과 간단한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동 중에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자주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즐겁게 들려주셨으므로 늘 유쾌하고 배움이 많은 자리였다. 식사는 안동의 경우 안동 시내에 나가서 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인근 종갓집 등의 초대를 받아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오후 시간은 대체로 그렇게 보내기도 하였지만, 일찍 귀가하는 경우 오후 강독이 오후 3시 이후 5시 정도까지 진행되었다. 그 후 휴식과 저녁 식사 시간이 이어지고, 대체로 어김없이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저녁 강독이 진행된다. 그 후에는 간단한 간식과 안주거리를 마련하여 회원들 간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벽사 선생님은 초반부에 잠시 참석하셔서 답소하시다가 먼저 주무시러 가시면 우리끼리 노래도 하고 달밤을 거닐기도 하면서 즐겁게 노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강독 장소는 초기에는 대체로 안동에서 진행되었으며, 민박집 悅話가 단골 숙박처였다. 열화는 퇴계 종가 근처에 위치한 컨테이너 식 건물 두 동으로 역시 퇴계의 후손 중 한 분이 운영하는 민박집이었다. 한 동은 2인 1실로 쓸 수 있는 숙소였고 한 동은 강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주방과 식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강독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경남 河東 岳陽의 靑鶴亭에서도 수차례 여름 강학이 이루어졌다. 청학정은 퇴계 선생의 후손 집안에서 지어 놓은 2층의 양옥집으로서, 가까운 곳에 토지마을과 화계장터, 쌍계사 등이 있었고, 쌍계사로 가는 길에 또한 아담한 전통 찾집이 있어서 강독 여가의 오후 시간을 보내기에 좋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학 집중 강독의 결과물은 공적으로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목판본 『퇴계집』 권9에서 권15에 이르는 편지글들이 번역·정리되어 있으며, 차후 『퇴계집』에 대한 번역의 수정 및 보완 작업 혹은 『정본 퇴계전서』에 대한 번역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라는 선생님의 당부가 있었다.

#### 4. 강독 모임의 이모저모

강독회의 운영에는 비용이 든다. 학사는 벽사 선생님의 연구실과 세미나실 두 곳을 사용하였으므로 대실비가 필요하며, 강독 후에 식사비용 등이 든다. 기본 대실 비용의 경우 선생님의 연구실은 선생님의 사비로, 세미나실은 고전문학연구회와 경학연구회 두 모임에서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였다. 그것을 포함해 필요한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였다. 각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2010년을 기준으로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있는 회원은 학기당 10만원, 그렇지 않은 회원은 학기당 5만원씩을 회비로 부담하였다. 또한 학기 중에 봄·가을 소풍을 가는 경우

그 비용은 특별 회비를 책정하여 해결하였다. 방학 집중 강독의 경우 퇴계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참여자들 역시 3만원~5만원의 회비를 내었다.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회원들이 회비를 내도록 말씀하셨고 이것은 강독 모임에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었다. 따라서 식비 등에 과도한 지출이 있지 않도록 늘 신경 쓰셨다. 대체로 한 끼 식사에 5천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셨다. 이는 재단이 출범하여 재단 측에서 식사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어떤 점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셨다. 실시학사 재단이 출범함으로써 대실비와 식비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지만 자치 활동을 위해 경학연구회는 1년에 한 번 회비를 거두고 있다.

박사 선생님은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대체로 字를 짓는 법에 따라 字를 주심으로써 공식적으로 회원을 인정하시는 것을 일종의 입회의 예로 만드셨다. 필자에게는 『詩經』의 “永錫祚胤”(「大雅」「既醉」)에 근거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永哉라는 자를 주셨다. 자를 받은 회원은 감사의 마음으로 회원들에게 자 톡이라는 것을 내도록 하셨다. 회원과 잘 어울리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는 가입 즉시 주지는 않으시고 좀 지켜보신 후에 주셨는데, 나는 아마도 2001년 여름 강화 때 주신 것으로 기억되고, 그 때 강학을 마치고 상경하는 도중 죽령 고개 마루의 어떤 주막에서 막걸리와 파전으로 간소하게 자 톡을 냈던 기억이 있다.

강독은 매우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오후 시간과 상경할 때의 답사 활동 또한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민박집 열화에서 강학이 진행될 때는 아침과 저녁은 숙소에서 해결하였으나 대체로 점심은 안동댐 근처의 식당 등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어서 도산서원을 비롯해 주변의 유적이나 종갓집 등지에 간략한 답사를 하거나 운치가 있는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공식적인 강독 활동 외에 대체로 봄과 가을에 한 번 씩 1박 2일 혹은 당일로 강화도나 부여, 충주, 영월, 여수 등지로 여행을 하였는데, 이 또한 잊을 수 없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를 통해 회원들과 선생님 사이에, 그리고 회원들 상호간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다. 재단이 출범한 후 최근 몇 년은 방학 중의 강화과 봄가을의 소풍에 고전문학연구회와 경학연구회의 전 회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셨다. 저녁 모임 때에는 대체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한마디씩 하도록 하시고 노래가 끝나면 간략한 평을 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거의 없는 경우

이지만 어느 해에는 선생님 스스로 자신의 청년시절의 경험을 간략하게 창을 부르듯이 읊조려 주시기도 하였다. 모두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이다.

## 5. 나가는 말

실시학사 경학연구회는 주로 다산을 중심으로 한 실학과 학자들의 경학적 성취와 관련된 문헌을 강독하고 연구하는 것에 주된 설립 취지가 있지만 회원들의 전공분야는 경학, 사학, 전통음악학, 정치학, 사회학, 철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는 물론 경학, 더 나아가 전통 학문 혹은 그와 연속성 위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간 실학 자체의 복합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학사 내의 또 하나의 연구모임인 고전문학연구회에 속하지 않는 기타 전공을 경학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모임의 초기에는 명칭에 부합되게 다산의 경학 관련 문헌들을 집중적으로 강독하였다. 그러던 것이 성리학, 곧 철학 분야의 회원들의 가입이 늘고,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던 방학 중의 『퇴계집』 집중 강독을 확장하여 학기 중에도 퇴계의 편지글들을 읽으면서 경학 및 실학을 넘어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 철학 분야로 강독 범위가 확산되어갔다. 사실 벽사 선생님께서서는 史學에 연구의 중점이 있었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 오랜 기간 재직하시면서 고전 문학 분야에 탁월한 제자들을 많이 기르셨지만, 철학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청소년기에 밀양 退老里의 자택 서재에서 梁啓超의 『飲氷室文集』을 탐독하신 경험과 그를 통해 칸트(I. Kant)의 철학을 알게 되었다는 회고담을 들려주시기도 하셨다.

물론 곁에서 지켜 본 선생님의 성향은 실학 연구의 개척자답게 상당히 實事求是적이어서 공연히 심오한 것 같은 관념적 논설에 대해서는 그다지 공감을 표하지 않으신다. 그런 점에서 전통 성리학의 理氣心性論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으시며, 차라리 거기에서 논의된 철학적 주제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양하여 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누차 당부하셨다. 한번은 강독 중에, 어떤 물리학자로부터 腦 과학의 관점에서 사단칠정론의 의의를 논한 것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의견을 묻기도 하시고, 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현대 심리학에서

꿈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기도 하셨다. 아직 우리의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해 깊이 있는 대화를 풍부히 이어가지 못한 점이 개인적으로 늘 부끄러울 따름이다.

경학이 經 혹은 고전에 대한 해석학이라고 한다면, 철학적 해석은 경학의 핵심적 부분의 하나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 철학, 더 구체적으로 성리학 분야에로의 관심의 확산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며 어떤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학’의 성격 규정이 새삼 논란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철학적 분석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경학이든 실학이든 전통 철학이든 실시학사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 그것들 자체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거기에서 오늘날의 삶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어떤 현대적 의의를 발견하고 발현하여 가는 실학적 관심과 연구 태도를 견지하며, 그를 통해 근대적 학문을 생산적으로 구축하여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박사 선생님이 실제로 자신의 학문적이고 실천적 활동을 통해 몸소 보여 주신 바이다. 또한 실시학사를 설립하고 강독 모임들을 지금까지 쉼 없이 이끌어 오신 것도 제자들의 한문 해독력을 높이시고자 하신 것 뿐 아니라 학사 내외의 후학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대적 과제에 즐겁게 동참토록 하고자 하신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박사 선생님이 앞으로도 더욱 건재하셔서 부족한 후학들에게 계속 따끔한 지적과 가르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 IV. 나가며

이상에서 박사 선생이 정년퇴직 후 1990년 7월에 강남구 대치동에 개인 연구실인 實是學舍(뒤에 경기도 고양 화정동으로 옮김)를 마련하여 문학·사학·경학·철학

---

9)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이원택(동북아연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박종천(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송지원(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이 총무였다.

분야 소장 연구자들과 함께 2017년에 서세하기 까지 27년간 쌓은 학술 업적을 대강 살펴보았는데, 김언종의 글이 1999년에, 윤세순의 글이 2013년에, 문석윤의 글이 2015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2017년 선생 서세까지의 시간과 그 이후 2023년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시학사 강학 활동은 잘 다루지 못했거나 소략한 감이 있다. 이를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이에서 알 수 있듯, 벽사 선생은 ‘20~21세기 한국 현대의 실사구시(實事求是) 학풍’을 조성 심화한 큰 발자취를 남겼다.

무엇보다 먼저 첫째, 기존 문학사에서 소외되었던 작품과 작가들을 일정한 지향과 책무로 발굴하여 학계와 대중에게 부각한 사업을 기리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선생의 그 자각과, 주선과 촉진이 없었다면 고전문학회의 그 활동은 거의 있기 어렵고, 그 작품들과 작가들은 그대로 매몰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후세 어느 시기에 그런 기운이 발동하여 같은 시도가 추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한 정리와 번역을 기억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고전문학연구회가 수행한 『里鄕見聞錄』, 『趙熙龍全集』·『李鈺全集』·『卞榮晚全集』·『完譯李鈺全集』·『二十一都懷古詩』·『熱河紀行詩註』·『嶺南樂府』 『貞山詩稿』 『太湖詩集』 『泠齋集』의 譯註와 출간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민족문학사의 부진과 결핍을 한 수월한 학자의 의지에 기인하여 극복한 유례 드문 21세기 초의 큰 업적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현재, 고전문학연구회는 선생 서세 전인 2016년에 시작되어 2019년에 1책을 출간한 유득공의 『泠齋集』 가운데 詩篇 역주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학연구회 역시 선생의 지도 편달이 없었더라면, 전문지식이 없이는 번역이 불가능한 『正體傳重辨』 『茶山과 文山의 人性論爭』 『茶山과 石泉의 經學論爭』 『茶山の 經學世界』 『詩經講義』 『貞山 李秉休의 詩와 哲學』 『星湖 李瀼의 心經疾書』 『茶山 丁若鏞의 尙書古訓』 같은 학술사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譯書들을 출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학연구회는 2022년부터 성호 이익의 『맹자질서』 역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선생은 후학들에게 학문을 추구하는 자세를 시범하였다. 기존 사전이나 번역이 아무리 권위 있어도 그대로 신빙하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후학들이 견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규범은 학문의 역사에서 새롭지는 않지만 그 실천이 쉽지 않고 학자 자신의 역량 한계와 오류에 결부되어 그 수정과 교정 역시 어려운

일종의 질곡이기도 한데, 선생은 성의와 실력으로 자신의 안목을 일신하면서 그 이행을 견인하며 후학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더불어 영향을 미쳤다.

셋째, 번역을 그저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고 후학들에게 부촉하였다. 번역은 강독의 결과이며 연구의 초석이다. 따라서 그 부촉은 여러 함축이 깃든 중대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오역은 해당 원문의 메시지를 부실하게 전달하고 심지어는 작자의 전체 의도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폐단은 沙上樓閣의 모래에 해당한다. 원전비평에서 강조되고 있듯 사실 독해나 연구 풍토를 막심하게 훼손하는 직업에 가까운 데도 서로 불문에 부치거나 외면하기도 한다. 선생은 이 폐단을 목도하고 정명의 의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선생의 학덕이 어찌 상기 몇 줄의 요약으로 그칠 수 있겠는가. 실시학사 활동은 선생의 생애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성균관대 교단생활, 80년대 민주화 관련 활동, 그리고 하나같이 정심한 국학 저작과 정교한 논문을 상기하고 그 걸출한 시야와 방대한 범주를 제대로 헤아려보면 선생은 그야말로, ‘전통 국학 繼往開來의 중심에 굳건히 서 계셨던 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실시학사 간행 서적 목록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1. 유재진 저, 『이향견문록』, 1책, 민음사. 1997. 12. 10. ; (개정판) 글항아리. 2008. 2. 11.

이우성, 김시업, 권진호, 김명균, 김용태, 김진균, 나종면, 신익철, 윤세순, 이성호, 이지양, 이철희, 이현우, 정환국, 진재교, 하정승, 한영규.

2. 조희룡 저, 『조희룡전집』, 6책, 한길아트. 1999. 9. 30. ; (증보판)

이우성, 송재소, 김시업, 권진호, 김명균, 김진균, 나종면, 신익철, 윤세순, 이성호, 이지양, 이철희, 이현우, 정환국, 하정승, 한영규.

3. 이옥 저, 『역주 李鉦全集』, 3책, 소명출판. 2001. 11. 25.

이옥 저, 『完譯 李鉦全集』, 5책, 휴머니스트. 2009. 3. 9.

이우성, 송재소, 김시업, 이희목, 권순궁, 권진호, 김동석, 김명균, 김영죽, 김용태, 김진균, 김채식, 김형섭, 나종면, 신익철, 윤세순, 이신영, 이지양, 이철희, 이현우, 정은진, 정환국, 최영옥, 하정승, 한영규, 한재표.

4. 변영만 저, 『변영만전집』, 3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6. 15.

이우성, 강지희, 권진호, 김동석, 김용태, 김진균, 김채식, 김형섭, 손혜리, 신익철, 윤세순, 이지양, 이철희, 정은진, 정환국, 최영옥, 하정승, 한영규, 한재표.

5. 유득공 저, 『역주 이십일도회고시』, 1책, 푸른역사. 2009. 4. 23.

이우성, 김명균, 김용태, 김형섭, 손혜리, 윤세순, 이신영, 이지양, 이철희, 이현우, 최영옥, 한영규, 한재표.

6. 유득공 저, 『열하기행시주 열하기를 여행하며 시를 짓다』, 1책, 휴머니스트. 2010. 6. 14.

이우성, 김영죽, 김용태, 김진균, 김형섭, 서경희, 손혜리, 신익철, 윤세순, 이신영, 이철희, 이현우, 최영옥, 한재표.

7. 이학규 저, 『영남악부-유배지에서 역사를 노래하다』, 1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7. 30.

이우성, 김용태, 김종민, 김진균, 신익철, 손혜리, 윤세순, 이신영, 이현우, 장유정, 최영옥, 한영규, 한재표.

8. 李秉休 저, 『정산 이병휴의 시와 철학』 1책,<sup>10)</sup> 사람의 무늬, 2013. 10. 30.

이우성, 김영죽, 김영진, 김용태, 김종민, 서경희, 손혜리, 윤세순, 이라나, 이성민, 최영옥, 하정원, 한재표.

9. 李元鎭 저, 『태호 이원진의 태호시고』, 사람의무늬, 2016. 10. 20.

김세호, 김영진, 김용태, 김종민, 서경희, 손혜리, 신익철, 윤세순, 이라나, 이성민, 이현우, 전수경, 하정원, 한영규.

10. 柳得恭, 『영재 유득공의 영재집』1, 학자원, 2019. 9. 30.

김세호, 김용태, 손혜리, 신익철, 윤세순, 이성민, 이철희, 이현우, 전수경, 정환국, 한영규

###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1. 정약용 저, 『정체전중변-조선후기 예송에 대한 다산의 인식』, 1책, 한길사, 1995. 5. 30.

이우성, 이지형, 김언중, 강중기, 김경천, 김영우, 김문식, 나종면, 송지원, 이명희, 이봉규, 이원택, 이철희, 임재완, 장동우, 전성호, 정일균

2. 정약용 이재의 저, 『다산과 문산의 인성논쟁』, 1책, 한길사, 1997. 10. 30.

이우성, 이지형, 김언중, 강중기, 김경천, 김문식, 나종면, 송지원, 이명희, 이봉규, 이원택, 이철희, 임재완, 장동우, 전성호, 정일균

3. 정약용 신작 저, 『다산과 석천의 경학논쟁』, 1책, 한길사, 2000. 3. 20.

이우성, 이지형, 강중기, 김경천, 김문식, 김언중, 나종면, 송지원, 이명희, 이

---

10) 이 책의 역주에는 경학연구회의 김보름, 김선희, 김성재, 김수길, 김언중, 김한상, 문석윤, 박성규, 박지현, 양일모, 이봉규, 이상돈, 이원택, 임부연, 전성진, 정소이, 함영대도 참여하였다.

봉규, 이원택, 이철희, 임재완, 장동우, 장병한, 전성호, 정일균, 진영미

**4. 정약용 김매순 외 저, 『다산과 대산 · 연천의 경학논쟁』, 1책, 한길사. 2000. 3. 20.**

이우성, 이지형, 강증기, 김경천, 김문식, 김언중, 나종면, 송지원, 이명희, 이봉규, 이원택, 이철희, 임재완, 장동우, 장병한, 전성호, 정일균, 진영미

**5. 정약용 저, 『다산의 경학세계』, 1책, 한길사. 2002. 2. 20.**

이우성, 이지형, 김경천, 김문식, 김언중, 김영우, 나종면, 문석윤, 박종천, 송영아, 송지원, 이명희, 이봉규, 이원택, 임부연, 임재완, 장동우, 장병한, 장호성, 전성호, 진영미

**6. 정약용 저, 『시경강의』, 5책, 사암. 2008. 12. 12.**

이우성, 김언중, 안병걸, 전광진, 나종면, 장병한, 김성재, 진영미, 송지원, 이봉규, 장호성, 김경천, 유미림, 장동우, 한예원, 전성호, 김문식, 이원택, 문석윤, 김영우, 이명희, 송영아, 임부연, 박종천

**7. 이병휴 저, 『정산 이병휴의 시와 철학』, 1책, 사람의 무늬, 2013. 10. 30.**

이우성, 김보름, 김선희, 김성재, 김수길, 김언중, 김한상, 문석윤, 박성규, 박지현, 양일모, 이봉규, 이상돈, 이원택, 임부연, 전성진, 정소이, 함영대(문학연구회와 공동으로 출간한 역서).

**8. 이익 저, 『성호 이익의 심경질서』, 1책, 사람의 무늬, 2016. 10. 20.**

이우성, 김문식, 김보름, 김선희, 김성재, 박수길, 김한상, 문석윤, 박성규, 박종천, 박지현, 이봉규, 이상돈, 이치역, 이현창, 임부연, 전성진, 함영대

**9. 정약용 저,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5책, 학자원, 2020-2022.**

- 1책: 김언중 해제, 김문식 해제, 김문식 · 김성재 · 문석윤 · 송지원 · 이봉규 · 장동우 · 함영대 역, 김언중 감수, 김성재 · 전성진 교열
- 2책: 김성재 역, 김언중 감수, 김문식 · 전성진 교열
- 3책: 김선희 · 김영우 · 이봉규 · 이은호 · 임재규 역, 김언중 감수, 김성재 · 전성진 교열

4책: 김문식 · 김성재 · 김영우 · 김한상 · 전성건 역, 김언중 감수, 김성재 · 전성건 교열

5책: 김보름 · 김성재 · 문석윤 · 임재규 · 전성건 · 함영대 역, 김언중 감수, 김성재 · 전성건 교열

## Pyöksa Yi Usöng's Discoursing on Learning at Society of Seeking the Truth from Facts 實是學舍

Kim, Eon-jong

Yi usöng is the figure who tried to pursue all three traditional Eastern teaching methods, such as conveying certain ideologies to students 傳道, transferring objective knowledge to students 授業, and solving suspicions of students who failed to enlighten them 解惑. Before the retirement at the age of 65, he had committed his life to writing and left numerous immortal works, and after that, he had not only written several works for 27 years, but he also mainly strived to communicate with and teach his own academic theories to others.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and achievements of the scholar's establishing "Society of seeking the truth from facts 實是學舍" after his retirement and discussing learning with younger scholars in the fields of literature, history, classical studies, and philosophy. After he found Society of seeking the truth from facts 實是學舍 in July 1990, and subsequently organized Association for Classical Literature (1992, 古典文學研究會) and Association for Classical studies of Tasan (1993, 茶山經學研究會). This scholar had been having a regular seminar every week here, discoursing on texts in Literary Sinitic even until the spring of 2017 when he passed away. This paper explores what his academic activities were like after he retired.

Key Words : Pyöksa Yi usöng, Society of seeking the truth from facts 實是學舍,  
Society of Classical Studies, Society of Classical Studies of Tasan 茶山  
經學研究會